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종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가명정보 분석환경 국내 최초로 구축

오늘부터 전북도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운영

도-국민연금 협업 국비 46억 투입해 조성
수요자 맞춤형 구매 활동 통한 데이터 활용
디지털 금융산업 외연 확장 새 먹거리 발굴

전북도(도지사 송하진)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정배)은 데이터 활용 분야인 '전북도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를 12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서비스는 디지털 대전환 속 디지털 금융을 선도하기 위해 전북도와 국민연금공단이 협업으로 국비 46억원을 확보해 구축한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사업이다.

지난해 5월과 12월 물리적 공간인 '센터'와 데이터 활용 서비스인 '플랫폼'을 차례로 구축을 완료했으며, 그간 시스템 안정화 및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는 등 민간의 준비를 끝으로 비로소 본격 운영에 들어가게 됐다.

국내 최초 가명정보 분석환경이 가능한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는 국민연금공단의 내부데이터를 바탕으로, 114종 1억4,000만여 건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사업장 정보, 가입자 정보, 지역이동량 등 국민연금공단의 데이터를 필두로 금융 데이터, 공공기관 개방 데이터와 더불어 수요자 맞춤형 데이터 구

매 활동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양적·질적 데이터 활용 기반을 제공한다.

또한, 필요할 때 사용자가 분석한 데이터 반출을 통해 다양한 창업 아이디어, 연구과제 등을 발굴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데이터 기반 창업 활성화와 혁신 금융 생태계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병행해 전북도 디지털 금융산업 성장을 가속화 할 예정이다.

특히, 금융혁신 빅데이터 센터를 통해 ▲데이터 활용 역량교육, ▲금융 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금융 스타트업 기업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제공 등 도내 디지털 금융산업의 외연을 확장해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 할 예정이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는 핵심 자원이며, 금융 분야에서의 빅데이터 활용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라며 "많은 도민들께서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를 이용,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통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얻어 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12일부터 운영될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사진=전북도청 제공)



전북도가 문화체육관광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과 함께 11일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에서 '제128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및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 개원식'을 연 가운데, 송하진 도지사, 유진섭 정읍시장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하늘 여는 빛, 새 길 있다'

동학농민혁명 기념식·기념공원 개원식 함께 개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은 지난 2014년부터 총 3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약 30만3,329㎡ 규모로 황토현전적지(사적 295호)에 조성했다.

기념공원에는 전시관과 추모관 연구동, 연수동 시설 등이 있고, 기념공원 중앙에는 전국 아흔 개 지역에서 일어난 동학농민군을 상징하는 아흔 개의 '울림의 기둥'이 세워져 있다.

앞으로 기념공원은 동학농민혁명 정

신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갑오살생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중심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기념식에서는 황토현 승전고를 상징하는 대북 공연과 함께,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 김정기 작가가 동학농민혁명의 주요 장면을 그려낸 영상으로 128년 전 그날의 정신을 되새기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넋을 기렸다.

아울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4

명과 국민연계를 함께하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기념재단 신순철 이사장의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개원 경과보고 등을 진행했다.

기념공원 개원을 기념해 전국 34개 기념사업단체들이 각 지역의 흙을 직접 가져와 한곳에 모으는 '합토식' 행사도 이어졌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하나로 모은 흙은 기념식수에 뿌리고, 그 역사적 의미를 계승해 나간다.

이번 행사는 국악인 송소희 씨와 청소년 합창단의 공연 개원 축하 기념공연으로 막을 내렸다. /유호상 기자

오늘부터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이들간 신청접수

선거운동은 19일부터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부터 13일까지 이들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국민으로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피선거권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의 경우, 선거일 현재 계속해 60일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등록 시에는 기탁금을 납부한 후,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서류, 공직선거

후보자등록 경력 주민등록초본, 본인승낙서(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한함), 교육경력 등 증명에 관한 제출서(교육감선거에 한함),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교육감후보자 및 무소속후보자의 경우 정당의 후보자추천서 대신 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장을 제출한다.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에는 19일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만 가능하다.

제8회 지방선거부터는 장애인인 후보자 또는 선거일 현재 39세 이하인 청년 후보자에 대해 기탁금과 기탁금 반환 기준을 완화했다.

후보자가 장애인이거나 선거일 현재 29세 이하인 경우 정해진 기탁금의 50%를, 선거일 현재 30세 이상 39세 이하인 경우에는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또한, 유효득표총수의 10% 이상 득표한 경우 기탁금 전액을 5% 이상 10% 미만 득표한 경우 절반을 돌려받는다.

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선거 선거구역 변경 및 선거사무장 등의 수당 인상에 연동해 선거비용제한액과 후원회의 연간 모금한도액도 변경된다.

지역구 시·도의원선거의 경우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이 지난달 27일 공고됐으며, 그 외 선거의 경우 11일 변경 공고 예정이다.

공고일 이후 회계책임자 등은 선거비용지출액 약정서를 지체 없이 다시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등록상황 및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병역·전과·학력·세금 납부·체납사항·공직선거 입후보 경력 등은 선거일까지 중앙선거위원회 시스템(http://infomc.go.kr)에 공개될 예정이다. /유호상 기자

!! 선생님 불펜

청명초등학교
1-1 유준형

우리 선생님 불펜 불펜은
○ 하고 ★ 만그릴 수 있어요.

반아쓰기 시험지에
맞은것은 크게 ○,
틀린것은 작게 ★.
그래서 내시험지는
우주같아요.



학생들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뛰고, 부대끼고, 웃고, 우는 선생님.

그 많은 날들이 지금의 전북교육을 만들었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카고실은 학교 반복한 교육 공동체

